



2004년
3월 15일
제 67호

춘천성시신문

나침반

교회생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기도운동

1998년 9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승룡 Fax. 033) 257-1260 Tel. 033) 256-1260 춘천시 효자1동 373-90 (☎200-091)

제9호) 춘천 직장신교인연합 찬양대회) 성료

춘천기독교직장신교인연합(회장 민경옥장로)은 지난 2월 17일(화) 오후 7시 동부장로교회 소예배실에서 직장신교인연합회 소속 직장신교회의 회원들이 가족 동반하여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직장신교인연합 찬양대회를 개최하였다. 1부 예배와 2부 찬양대회로 진행된 본 행사를 위해 관영감리교회 박인관 목사가 설교말씀을 전했으며 김동환 안수집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2부 찬양회는 소양교회 그리스찬양단을 비롯해 각 직장신교회를 중심으로 높은 실력을 자랑하며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춘천기독교직장신교회의 화합된 모습으로 하나됨에 영광을 돌렸다. 찬양대 참가팀은 ▲그리스찬양단(소양감리교회) ▲농협 지역본부(능하신 주) ▲월드비전(마지막 날에) ▲춘천시청(내가 어둠속에서) ▲강원도청(주만 바라 볼께라) ▲강원대학교(살아 계신 주) ▲춘천우체국(이 믿을 더욱 굳세라) ▲한림대학교(주님을 모르면 세월) ▲한국은행(주만 바라 볼께라) ▲한국복지재단(내가 천사의 말을) ▲종합시험연구센터(예수가 찾아오)



제85주년 3·1절 기념 연합예배

- 삼일절 정신과 성경적 애국심 (느헤미야 1:4-10) -

춘천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CBS 춘천방송의 후원으로 2월 29일(주일) 오후 7시 30분 동부장로교회에서 371명 연합예배가 개최되었다. 교파를 초월한 춘천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배는 춘일감리교회 김동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부회장 안주식 장로의 대표기도, 춘천YWCA회장 신경자 장로의 성경봉독, 춘천제일장로교회 성가대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장로, 평화감리교회 한국 목사가 각각 세계평화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 춘천시의 복음화를 위하여, 사회와 문화복음을 위하여 기도했다.

춘천그리스도의 교회 조영호 목사가 헌금기도를 드린 후 CBS 교회를 떠나 운사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총무 지용찬 목사(은혜장로교회)의 광고에 이어 직전회장 임인영 목사(동부장로교회)의 축도로 삼일절 연합예배를 마쳤다.

이날 헌금안내, 안내, 차량안내를 위해서 나눔성경교회와 새순성경교회, 순복음춘천교회, 동부장로교회 성도들이 수고, 봉사하였으며 춘천지역의 크리스찬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하나된 마음으로 삼일절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가능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5분 메시지

《바른 가치관》

지용찬 목사(춘천은혜장로교회 담임, 춘천기독교연합회 총무)

(본문: 창세기 26:23~33)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볼 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치중조가 범람하고 범죄의 양상이 다변화 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가치관의 상실과 가치관의 다양성 때문이다.

가치부재 현상이 만연한 이 사회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바른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은 말씀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말할 때 이삭에 대한 기사는 몇장 안되고 아무런 특징이 없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그만큼 이삭은 별로 튀지 않는 인물인 것 같다.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릴때도 반항

하지 않는 어찌된 바보같은 사람인 것 같아 보이고, 결혼후에도 자신의 의사는 전혀 반영된 것 같지 않고 또 우물쭈물 사건만 해도 내 놓으라 하면 그냥 쫓겨버린다. 자기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은 사람???? 그러나 이삭이 정말로 양보하지 않고 꼭 지키고자 했던 것이 있다.

창세기 24장 62절에.....함상 들에 나가 목상하는 습관과 창세기 25장 21절에.....이삭의 아내가 잉태지 못할 때 간구하는 일과 창세기 26장 25절에.....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

다시 말하면 이삭의 관심과 그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세상에 모든 것 잃어도 다 빼앗겼도 생명 걸고 비켜야 할 일..... 그것이 말씀과 기도요 또한 주님께 예배드리라는 일이다.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아니 무슨 일이 중요한 일인지, 무엇을 먼저 하고 또 나중에 할 일이 무슨 일인지, 혼돈 속에 살기에 최선의 삶을 사는 것 같으나 열매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다.

열매없는 이삭의 삶은 창세기 26장 26절.....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고요.

창세기 26장 29절.....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요.

창세기 26장 31절.....그들이 평안히 갔다요.(하나님 / 화평)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요, 공동체를 생명있게 함과 아름다운 열매는 삶은 다 빼앗겼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생명있게 지키는 것이다.



셀(Cell)교회, 자연적 교회 성장세이나 성료

예장대신측 춘천시교회(시찰장 유필규 목사)는 춘천중앙장로교회(사공정 담임목사) 성전에서 지난 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셀교회 및 자연적 교회성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가나안교회 김희철 목사(미 리전트신학원에서 셀교회 및 NCD전공 목회학박

사 과정 수료)는 셀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해, 서승범 목사(한국NCD전문위원)는 자연적 교회성장 원리에 대해 강의했다. 또 셀처럼 나누기만 주체로 중앙교회 담임인 사공정 목사의 강의가 있었다. 춘천중앙장로교회는 4년전부터 셀교회를 적용해 오고 있다.

춘천 기독교 연합 통일선교원 설립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오승룡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설 통일연수원 설립을 위하여 2004년 3월 6일 오전 10시 나눔성경교회(피종호 담임목사) 성전에서 통일연수원 설립을 위한 연합의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내용은 한국 기독교가 통일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 이에 모든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들은 통일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다. 통일 후에 북한땅에 세울 교회가 남한

교회를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한 교세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신학 및 신앙사고를 바로 세우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로 양육해 가야 할 것이다.

통일선교원을 통하여 사교와 신학을 바로 세우고, 생활신앙을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목회자와 중진 신앙인들이 통일을 대비, 무장해야 할 것이다.

4월 12일 감리회 동부연합회 개최

-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춘천중앙교회에서 -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합회(감동, 권오서 목사)는 제63회 연회를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개최한다. 4월 12일 오후 2시 개회예배와 성만찬식, 오후 5시 최무치리와 본과위원회의 및 각급 보고를 맡으며 지난 일년간의 선교결과를 한다. 4월 14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연회에서 38명의 목사 안수와 별세 목사 추도예배, 은퇴목사 찬양과 30년 근속 목회자와 평신도 표창, 전도왕

시상을 하겠으며 특히 이 기간중에는 미국 위스콘신 연회와 동부연합회가 자매 결연 조인식을 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미국감리회와 감리사 15명이 참석한다. 동부연합회는 3년째 춘천중앙교회에서 연회를 개최하며 넓은 공간과 최신형 설비를 이용하여 특별공연, 연상을 통한 보고와 자료시청 등 특색있는 연회를 개최하며 회원 1500명이 참석하게 된다.

춘천 기독교직장인 정오예배

일시: 3월 30일(화) 12:00(예배)~12:35(식사) 장소:동부장로교회
설교: 미정 사회:안대환 춘천시청 신교회
기도:홍복춘 춘천시청 직장신교회 피아

노반주: 박은경
춘천직장신교연합 정오예배위원장 공영준 H.P.017-370-8537
(연합회비납부) 우체국 202267-02-050582 예금주:홍복춘

한기총 통일선교대학 사이버통신과정 춘천지역 회원 모집

■통일선교대학이란?

한기총 통일선교대학은 61개 교단 16개 선교단체와 기관으로 이루어진 한국교회의 대표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남북한선교총연합회의 산하 기관입니다. 통일선교대학은 민족통일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통일과 북한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선교의 일꾼양성의 필요성에 의해 1998년 2월에 개교하였습니다.

■교육과정소개

통일선교대학의 교육과정은 1년 2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과정은 한 학기당 12강좌가 진행되어지며 통상 1년에 24강좌를 수강하고 소논문 통과 후 자격자에 한해 수료하게 됩니다. 또한 여름 가을 방학을 이용하여거나 혹은 학기중에 집중세미나와 중국선교현지 단기선교경험론, 금강산통일선교세미나, 및 하나원이나 대성공사, 관문정등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게 됩니다. 1년 2학기 24강좌를 통해서 대북업무에 관한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등 각 분야 국내 최고 전문 강사진들의 통일과 북한선교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강의를 통해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한 성경적이고 올바른 시각을 제시하며, 현재의 남북관계 및 남북 종교교류에 관한 폭넓은 시야를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이버 통신과정 회원모집□ (http://www.cck.or.kr/Academy)

통일선교대학의 학습방법은 출석 수업과정과 통신수업과정으로 나뉘어 있는데, 출석 수업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이버 통신과정 회원을 모집합니다. 사이버 통신과정회원이 되시면,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ck.or.kr/Academy에 들어가서 등록 및 가입절차를 통해 ID와 Password를 부여받아 동영상강의를 통해 수업을 받습니다.(통신과정의 자료인 녹음 TAPE와 강의록 제공)

■한 학기 12강좌, 매주 월요일 저녁 7-9시 강의 ■통신강좌(강의안 및 강의TAPE 발송) ■북한 선교 집중론(1학 2월) ■북한경제위기 단기 선교연구(4학 5월)

주최: 춘천 기독교 연합회(회장 오승룡)

주관: 춘천 기독교 연합회 선교단체연합회

【특징】 한국기독교 61개 교단, 16개 기관단체 연합기관의 유일한 통일 교육기관으로 정부와 학계, 교계의 최고 통일선교 전문가들이 강사로 섬기고 있으며 정규 강좌 및 통신강좌, 집중훈련, 현장간담회 등 4코스로 진행

【입학자격】 청년대학생, 평신도, 신학생, 교역자, 통일과 북한선교 관심자면 누구나 가능함(학력무관)

【비비】 1학기: 12만원(단체등록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 수료 후 한기총 통일정책연구회 가입자격 부여, 한기총 북한선교사 자격부여 및 과목 ※춘천지역 단체등록 회원은 함께 모여 동영상 보고 심도 깊은 토론 진행 제회.

【장소】 춘천나눔교회 ☎251-9191 (비계동 주공6단지화 한주아파트 사이)

【제출서류】 입학지원서, 사진, 주민등록등본 1통

【개강예배】 2004년 4월 12일(월) 오후 7시 30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1층 소강당(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등록문의】 통일선교대학 준비위원회 조영호목사 011-369-2354 / 016-9722-8150

사설

열린 사회의 다양성이 아쉽다

오래 전 정치철학자 칼 포퍼는 '열린 사회'라는 화두를 꺼내며 민주주의의 의미는 발전은 다양한 견해들이 존중되고, 그것들이 깊이 있게 다루어지며 토론되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한 바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열린사회'의 모습이 아니라 '닫힌사회'의 모습이 이곳 저곳에서 발견된다. 심지어 우리가 문명정부 시대를 거쳐 국민의 정부, 현재의 참여정부시대에 살고 있지만 대화와 타협, 열린 사회의 모습을 우리 사회에서 발견하기에는 아직도 멀게 느껴진다. 현 대통령 탄핵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법 논리를 떠나서 다수의 국민들은 민주적인 투표결과를 거쳐 탄생한 현 대통령의 중간 하야나 탄핵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 대통령의 갖은 말실수와 구절수에 오를 수 있는 행보에 불안과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의 개혁입장을 온전히 지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견해들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반대파의 견해를 포용하고, 더 나은 길을 찾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와 대립을 빚어온 탄핵에 대해서도 포용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자신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지도자나 시민을 구분하지 않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사회'의 다양성을 다시 한번 추구한다.

직 논리로 바라보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 모든 것이 이전의 군사정부 시절의 한계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군사정부가 만들어낸 사회는 일사불란한, 그러나 획일적인 사회였다. 획일적인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인정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한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적이고, 다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소위 왕따가 된다. 다르다는 것을 통한 조화를 찾는 노력보다는 획일성 속에 안도하고 인주한다. 획일성은 그 사회와 그 구성원을 모두 불행하게 한다.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패권권 쥔리자나 패배감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간다. 대외적으로 '노사모'가 그렇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대외에 '노사모'와 같은 젊은 그룹들의 신선한 역학을 대외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반대로 대외에 대한 분별력 없는 맹목적인 지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반대파의 견해를 포용하고, 더 나은 길을 찾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와 대립을 빚어온 탄핵에 대해서도 포용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자신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지도자나 시민을 구분하지 않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사회'의 다양성을 다시 한번 추구한다.

사회동요, 노아 방주 신앙으로 이겨내자

대통령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정국혼란이 크고 작은 도상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자력이 있는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몽고침략,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일합방, 육이오전쟁까지 그 험난했던 상황들을 슬기롭게 이겨낸 민족이다. 더욱이 우리 신앙인들은 말할 나위도 없다. 노아는 대홍수와 인류멸망이라는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방주를 만들어 숨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인류사가 굽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였다. 노아홍수를 신하로 삼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사건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창세기 6장 이후에 나타난 그의 행적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노아는 그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는 땅에 있었지만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만민을 분별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세미하나 나팔소리와 같이 크게 말

씀하신다. 우리가 믿는 것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 숨쉬는 이 한반도는 안전하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심령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로,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루하루 방주를 만드는 데 표현하였다. 노아방주는 120년에 걸쳐 만들어졌다. 배를 만드는 데만 120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러내는데 120년이 걸린 것이다. 노아가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켰듯이 우리도 우리의 땅을 들어 방주를 지어 나가자. 시대적인 혼란 속에서 망명자일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자기 위치를 지키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노아 신앙으로 나아가자.

Manna

언제나 동일하신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항상 우리를 역경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하여 계시는 방법을 통해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다. 외면 속에 혼자 버려져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계시를 통하여 계시는 방법을 찾아 섬을 헤매다가 쾌속한 대가 해안가에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재빨리 연료 탱크로 연료가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엔진에 시동을 걸고는 멀리 가버렸다. 그는 고립된 상태에서 구출된 것이다. 이번에는 똑같은 사람이 다른 처지에 처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번에는 그가 보트를 발견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버려진 농가와 과수원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과수원을 경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농기구를 발견한다. 그럼으로써 그는 비록 생 안배에 한계 있지만,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혼자서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누구나 처음의 경우가 될 때 더 바람직하게 보인다는 데 이의를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에게 구원의 방법이 제공되었다. 다만 그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역경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므로 당신의 신실함을 증명하시며 종중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에게 구원의 방법이 제공되었다. 다만 그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역경을 이기는 법/월스 스탠리/발행: sammoil.com)



최영석 목사
간원교회

신교훈련생이 신교와 다문화간 사역에 대해서 배워야 할 사항이 대단히 많다. 그러나 그 외에도 신교를 준비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정작하게 말해서 신교사역에 들어선다는 것은 거칠고 힘든 일일 수 있다. 때로는 거칠고 좁고 과묵한 곳을 지나쳐야 할 때도 있다. 그래서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신교 훈련생은 많지만 신교지로 나가는 사역자는 많지 않는다. 이러한 신교의 발흥 원인을 밝히기 위한 방법론의 하나가 OL프로그래밍이다. 신교훈련생과 이를 돕는 코치의 관계가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번 글에서는 신교훈련생과 코치와 맺는 일관적인 헌신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헌신적인 헌신관계에서의 핵심적 가치들**
아래의 핵심가치들은 인생의 출발점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①예수님 중심의 관계: 코치는 신교 훈련생을 자신의 가치관대로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의의에서 훈련생이나 코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중심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파벽과 같은 존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형성을 제공하는 단단한 토대가 되며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제공하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 안에서 훈련생과 코치가 함께 성장하며, 함께 연단을 받으며, 함께 정결케 된다. 그분은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는 빛이시며 반석이요 기반이시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붙여주는 분으로 깊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 훈련생과 코치가 예수님 중심의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②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훈련생과 코치는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③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④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⑤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⑥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⑦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⑧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⑨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⑩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⑪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⑫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⑬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⑭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⑮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⑯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⑰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⑱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⑲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⑳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㉑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㉒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㉓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㉔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㉕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㉖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㉗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㉘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㉙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㉚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㉛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㉜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㉝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㉞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㉟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㊱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㊲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㊳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㊴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㊵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㊶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㊷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㊸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㊹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㊺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㊻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㊼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㊽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㊾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㊿유용성: 상호 관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반 과정을 지나 성숙해 올라 축복을 따르려는 순간까지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통찰력까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평정하시며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수하라. 또한 상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라.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함심에서 기도하며, 폭풍처럼 요동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코치와 훈련생과의 상호 관계, 그리고 성장까지 오는 모든 여정을 지켜줄 것이다. ⑤**솔직함과 정직성**: 각자의 인생을 조성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과 각자에게 어떤 식으로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어 보라. 신뢰되는 태도와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각자의 상처를 서로에게 허물없이 드러내고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서로에게 약속하라.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로 이 훈련에 임하라. 상호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서로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⑥**겸손성**: 서로 상대방에게서 이해와 관심을 얻고 싶은 만큼이나, 최대한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로 결심하라. 예견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최대한 귀를 기울여라. 상대방의 마음 속에 있는 보화같이 귀중한 것들을 끄집어 낼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들으려는 마음으로 임하라.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들어주라. ⑦**충실함**: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서로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라. 상호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것을 발견했다면, 성경의 도우심을 받아 자유롭게 하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라.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상호 맺은 언약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때 가지셨던 목적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게 될 것이다.

■코치와 함께 쓰는 저널(Journal)

저널은 훈련생들이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하여 장정에 도달하기까지의 트레일 여정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자각이나 통찰력, 그리고 의문점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들, 말하지 않았던 기록, 검토, 통합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이다. 또한 저널은 훈련생들이 각자의 개별 트레일을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코치는 직접 쓴 글자로 그들을 격려하고 존중하며 힘을 실어주는 식으로 그들이 기록한 저널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저널은 각자가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그날 그날을 자연스럽게 기록할 수 있으면 된다. 이메일을 주고 받는 방식도 가능하고, 제본된 저널에 기록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일지 작성을 습관화하면, 코치와 훈련생이 둘 다 이번 OL여정에서 뿐 아니라 평생동안 이로 인해 자기 성찰 훈련이 강화되고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이끄는 코치와, 이후에도 동일하게 이끌어 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준다.

■행동 단계(Action Timeline)

베이스 캠프에서 나와 각자의 여정을 향해 한 발 내딛기 전에, 여러분들은 자신의 현 위치와, 나아가 방향, 언제쯤 장정에 도달할 것인가 등에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목표 등을 세워야 한다. 적절하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실천에 실패 가능한 행동 단계표를 작성하여 그 표대로 움직이든, 좀 더 준비된 자세로 장정을 향한 여정의 모든 과정에 집중할 수 있다.

인도 비하르주 선교

비하르 선교의 향후 방향성

이영길 선교사님께서 인도 비하르로 간지 3월 31일 떠나고 있습니다. 인도 비하르주 선교의 사역에 대하여 소개한다는 것은 사역의 방향을 검토하면 비하르에서 펼쳐지고 있는 선교 사역의 본질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본인이 인도를 떠나는 지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어서 포괄적인 상황으로서의 선교현황을 보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이영길 선교사님의 비하르 선교 방향을 위한 기도 편지를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동역자님, 할렐루야! 축복의 땅 비하르에서 문헌을 드립시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비하르 선교가 아름다운 열매의 관계를 통하여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비하르 선교가 개척 단계를 넘어 2단계의 선교 사역에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비하르 선교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입장을 가능한 잘 대변하고, 비하르 선교라는 입장에서 가장 유익한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선교 방향에 대하여 잘 정리하고 조직적인 글로 표현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이해해 주시고, 비하르 선교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하르 선교 현지에서 일하는 사역자로서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위해 제시하고 싶은 몇 가지 주제와 같습니다.»

①**비하르 선교 주제의 다문화와 GMP의 선교 참여**

②**예수 가족 사역의 특성화 (종합 개발)**

③**비하르 선교 주제의 다문화와 GMP의 선교 참여**

④**비하르 선교 주제의 다문화와 GMP의 선교 참여**

⑤**비하르 선교 주제의 다문화와 GMP의 선교 참여**

가족이라는 한 우선 속에서 진행되었습다. 사실상 다양한 참여자가 있었지만, 현장에서서는 다양화 하지 않았고, 예수가족이라는 한 주제만 있었습다. 선교가 점점 넓어짐에 따라 단일 모델이 더 필요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습다. 한 그룹이 수용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후방 측 한국에서 유입되는 선교 인력에 대한 파송권과 오리엔테이션, 교육, 후방 지원체계, 재교육, 복지, 인식전개 등등은 현장 활동을 제외하고는 전방 측, 선교지에 사두지 않을수록 좋은 영역입니다. 의사소통과 보고, 계획, 자녀 교육 등도 조직적인 안배가 필요하고, 특정기관이 이러한 분야를 맡아 섬기고, 현장에서는 팀을 이루어 일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비하르 선교 과정에 참여한 그룹들이 지남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고, 재정을 동원하게 되었습다. 이러한 흐름들은 당면한 선교를 행함에 있어 구상된 것과는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주제가 되고 있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십시오. 이러한 주제를 수용하는 것은 사역자로서 선교를 제외하고는 전방 측, 선교지에 사두지 않을수록 좋은 영역입니다. 의사소통과 보고, 계획, 자녀 교육 등도 조직적인 안배가 필요하고, 특정기관이 이러한 분야를 맡아 섬기고, 현장에서는 팀을 이루어 일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비하르 선교 과정에 참여한 그룹들이 지남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고, 재정을 동원하게 되었습다. 이러한 흐름들은 당면한 선교를 행함에 있어 구상된 것과는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주제가 되고 있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십시오. 이러한 주제를 수용하는 것은 사역자로서 선교를 제외하고는 전방 측, 선교지에 사두지 않을수록 좋은 영역입니다. 의사소통과 보고, 계획, 자녀 교육 등도 조직적인 안배가 필요하고, 특정기관이 이러한 분야를 맡아 섬기고, 현장에서는 팀을 이루어 일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비하르 선교 과정에 참여한 그룹들이 지남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고, 재정을 동원하게 되었습다. 이러한 흐름들은 당면한 선교를 행함에 있어 구상된 것과는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주제가 되고 있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십시오. 이러한 주제를 수용하는 것은 사역자로서 선교를 제외하고는 전방 측, 선교지에 사두지 않을수록 좋은 영역입니다. 의사소통과 보고, 계획, 자녀 교육 등도 조직적인 안배가 필요하고, 특정기관이 이러한 분야를 맡아 섬기고, 현장에서는 팀을 이루어 일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비하르 선교 과정에 참여한 그룹들이 지남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고, 재정을 동원하게 되었습다. 이러한 흐름들은 당면한 선교를 행함에 있어 구상된 것과는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주제가 되고 있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십시오. 이러한 주제를 수용하는 것은 사역자로서 선교를 제외하고는 전방 측, 선교지에 사두지 않을수록 좋은 영역입니다. 의사소통과 보고, 계획, 자녀 교육 등도 조직적인 안배가 필요하고, 특정기관이 이러한 분야를 맡아 섬기고, 현장에서는 팀을 이루어 일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비하르 선교 과정에 참여한 그룹들이 지남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고, 재정을 동원하게 되었습다. 이러한 흐름들은 당면한 선교를 행함에 있어 구상된 것과는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주제가 되고 있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십시오. 이러한 주제를 수용하는 것은 사역자로서 선교를 제외하고는 전방 측, 선교지에 사두지 않을수록 좋은 영역입니다. 의사소통과 보고, 계획, 자녀 교육 등도 조직적인 안배가 필요하고, 특정기관이 이러한 분야를 맡아 섬기고, 현장에서는 팀을 이루어 일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비하르 선교 과정에 참여한 그룹들이 지남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고, 재정을 동원하게 되었습다. 이러한 흐름들은 당면한 선교를 행함에 있어 구상된 것과는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주제가 되고 있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십시오. 이러한 주제를 수용하는 것은 사역자로서 선교를 제외하고는 전방 측, 선교지에 사두지 않을수록 좋은 영역입니다. 의사소통과 보고, 계획, 자녀 교육 등도 조직적인 안배가 필요하고, 특정기관이 이러한 분야를 맡아 섬기고, 현장에서는 팀을 이루어 일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비하르 선교 과정에 참여한 그룹들이 지남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고, 재정을 동원하게 되었습다. 이러한 흐름들은 당면한 선교를 행함에 있어 구상된 것과는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주제가 되고 있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십시오. 이러한 주제를 수용하는 것은 사역자로서 선교를 제외하고는 전방 측, 선교지에 사두지 않을수록 좋은 영역입니다. 의사소통과 보고, 계획, 자녀 교육 등도 조직적인 안배가 필요하고, 특정기관이 이러한 분야를 맡아 섬기고, 현장에서는 팀을 이루어 일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비하르 선교 과정에 참여한 그룹들이 지남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고, 재정을 동원하게 되었습다. 이러한 흐름들은 당면한 선교를 행함에 있어 구상된 것과는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주제가 되고 있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십시오. 이러한 주제를 수용하는 것은 사역자로서 선교를 제외하고는 전방 측, 선교지에 사두지 않을수록 좋은 영역입니다. 의사소통과 보고, 계획, 자녀 교육 등도 조직적인 안배가 필요하고, 특정기관이 이러한 분야를 맡아 섬기고, 현장에서는 팀을 이루어 일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비하르 선교 과정에 참여한 그룹들이 지남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고, 재정을 동원하게 되었습다. 이러한 흐름들은 당면한 선교를 행함에 있어 구상된 것과는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주제가 되고 있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십시오. 이러한 주제를 수용하는 것은 사역자로서 선교를 제외하고는 전방 측, 선교지에 사두지 않을수록 좋은 영역입니다. 의사소통과 보고, 계획, 자녀 교육 등도 조직적인 안배가 필요하고, 특정기관이 이러한 분야를 맡아 섬기고, 현장에서는 팀을 이루어 일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비하르 선교 과정에 참여한 그룹들이 지남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고, 재정을 동원하게 되었습다. 이러한 흐름들은 당면한 선교를 행함에 있어 구상된 것과는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주제가 되고 있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십시오. 이러한 주제를 수용하는 것은 사역자로서 선교를 제외하고는 전방 측, 선교지에 사두지 않을수록 좋은 영역입니다. 의사소통과 보고, 계획, 자녀 교육 등도 조직적인 안배가 필요하고, 특정기관이 이러한 분야를 맡아 섬기고, 현장에서는 팀을 이루어 일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비하르 선교 과정에 참여한 그룹들이 지남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고, 재정을 동원하게 되었습다. 이러한 흐름들은 당면한 선교를 행함에 있어 구상된 것과는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주제가 되고 있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십시오. 이러한 주제를 수용하는 것은 사역자로서 선교를 제외하고는 전방 측, 선교지에 사두지 않을수록 좋은 영역입니다. 의사소통과 보고, 계획, 자녀 교육 등도 조직적인 안배가 필요하고, 특정기관이 이러한 분야를 맡아 섬기고, 현장에서는 팀을 이루어 일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비하르 선교 과정에 참여한 그룹들이 지남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고, 재정을 동원하게 되었습다. 이러한 흐름들은 당면한 선교를 행함에 있어 구상된 것과는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주제가 되고 있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십시오. 이러한 주제를 수용하는 것은 사역자로서 선교를 제외하고는 전방 측, 선교지에 사두지 않을수록 좋은 영역입니다. 의사소통과 보고, 계획, 자녀 교육 등도 조직적인 안배가 필요하고, 특정기관이 이러한 분야를 맡아 섬기고, 현장에서는 팀을 이루어 일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비하르 선교 과정에 참여한 그룹들이 지남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고, 재정을 동원하게 되었습다. 이러한 흐름들은 당면한 선교를 행함에 있어 구상된 것과는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주제가 되고 있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십시오. 이러한 주제를 수용하는 것은 사역자로서 선교를 제외하고는 전방 측, 선교지에 사두지 않을수록 좋은 영역입니다. 의사소통과 보고, 계획, 자녀 교육 등도 조직적인 안배가 필요하고, 특정기관이 이러한 분야를 맡아 섬기고, 현장에서는 팀을 이루어 일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비하르 선교 과정에 참여한 그룹들이 지남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고, 재정을 동원하게 되었습다. 이러한 흐름들은 당면한 선교를 행함에 있어 구상된 것과는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주제가 되고 있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십시오. 이러한 주제를 수용하는 것은 사역자로서 선교를 제외하고는 전방 측, 선교지에 사두지 않을수록 좋은 영역입니다. 의사소통과 보고, 계획, 자녀 교육 등도 조직적인 안배가 필요하고, 특정기관이 이러한 분야를 맡아 섬기고, 현장에서는 팀을 이루어 일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비하르 선교 과정에 참여한 그룹들이 지남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고, 재정을 동원하게 되었습다. 이러한 흐름들은 당면한 선교를 행함에 있어 구상된 것과는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주제가 되고 있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십시오. 이러한 주제를 수용하는 것은 사역자로서 선교를 제외하고는 전방 측, 선교지에 사두지 않을수록 좋은 영역입니다. 의사소통과 보고, 계획, 자녀 교육 등도 조직적인 안배가 필요하고, 특정기관이 이러한 분야를 맡아 섬기고, 현장에서는 팀을 이루어 일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비하르 선교 과정에 참여한 그룹들이 지남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고, 재정을 동원하게 되었습다. 이러한 흐름들은 당면한 선교를 행함에 있어 구상된 것과는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주제가 되고 있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십시오. 이러한 주제를 수용하는 것은 사역자로서 선교를 제외하고는 전방 측, 선교지에 사두지 않을수록 좋은 영역입니다. 의사소통과 보고, 계획, 자녀 교육 등도 조직적인 안배가 필요하고, 특정기관이 이러한 분야를 맡아 섬기고, 현장에서는 팀을 이루어 일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비하르 선교 과정에 참여한 그룹들이 지남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고, 재정을 동원하게 되었습다. 이러한 흐름들은 당면한 선교를 행함에 있어 구상된 것과는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주제가 되고 있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십시오. 이러한 주제를 수용하는 것은 사역자로서 선교를 제외하고는 전방 측, 선교지에 사두지 않을수록 좋은 영역입니다. 의사소통과 보고, 계획, 자녀 교육 등도 조직적인 안배가 필요하고, 특정기관이 이러한 분야를 맡아 섬기고, 현장에서는 팀을 이루어 일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비하르 선교 과정에 참여한 그룹들이

